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 바로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저하, 밖으로는 세계화의 급진전, BRICs의 급성장 등의 문제...
우리 앞에 안팎으로 놓인 환경들은 구조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문제들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

①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런 추세로라면 2020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에 이를 전망입니다.

② 사회 경제적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기업, 소득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큼니다.

③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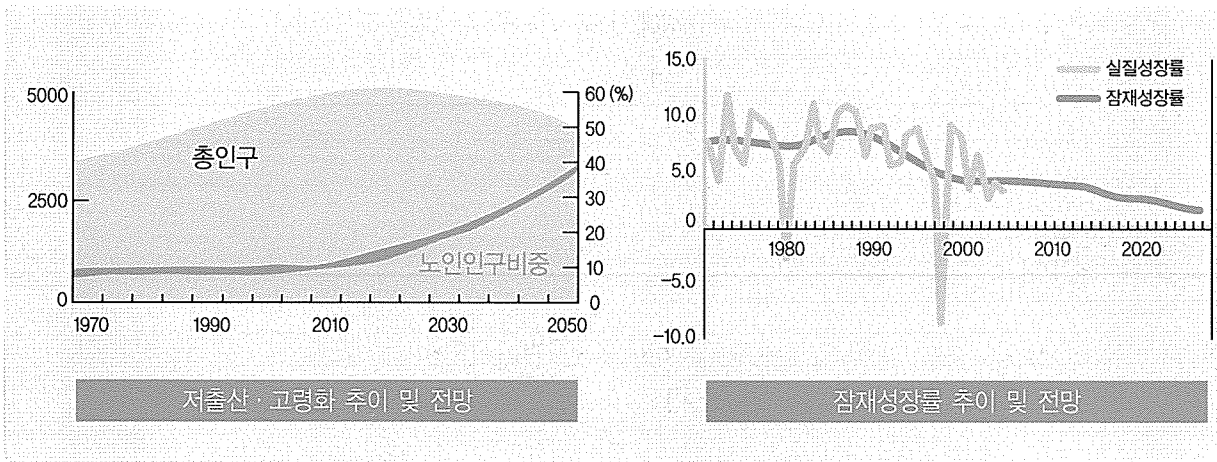
80년대 6~8%대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 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2%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를 낡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단절되고 일자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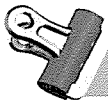
④ 낡은 사회시스템도 고쳐야 합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해집단간 대립과 과도한 권리주장 등이 사회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⑤ 세계화에 대응하고 BRICs의 급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의 FTA국가간의 거래이며 브라질, 중국 등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기회는 앞에서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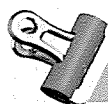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과수원 앞을 지나갈 때였다. 과수원 주인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과수원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제 과수원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과일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제자들은 앞다투어 과수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철학자는 과수원이 반대편으로 걸어가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과수원을 빠져나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빈손이었다. 이것도 커 보이고 저것도 커 보여서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과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따고 과수원 길이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안타까워하며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 철학자는 제자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리스포스라는 조각가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앞머리는 술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동상을 만들었지. 이 우스꽝스러운 동상을 보고 웃던 사람들은 그 동상의 받침대에 쓰인 글을 보고 웃음을 푼 그쳤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렸는가?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왜 앞머리는 무성한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출처 : 좋은생각〉



알리는 말씀

검사협회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협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홍보지입니다. 협회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
- 각종 검사제도개선 및 해양수산정보
-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대책 등

☎ 연락처 : 전략기획팀 | TEL : 032-260-2226 | FAX : 032-260-2315
| E-mail : su7412@kst.or.kr

